

호법신장 역할 특특... 성스러운 백호는 탕화 단골

#백화에 담긴 호랑이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단군 신화에서 보듯이 산신은 우리나라 고유 신앙 체계와 관련이 깊다. 산신은 원래 불교의 신종이 아닌 우리나라 고유의 토착신으로 자연스레 산신 신앙은 호랑이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됐다. 이러한 점은 불교와 함께 습화되면서 호랑이는 산신각의 산신이나, 탕화로 구체화돼 표현됐다. 산신각은 우리나라 사원에만 있는 특유한 전각으로서 불교의 토착화 과정을 말해주는 좋은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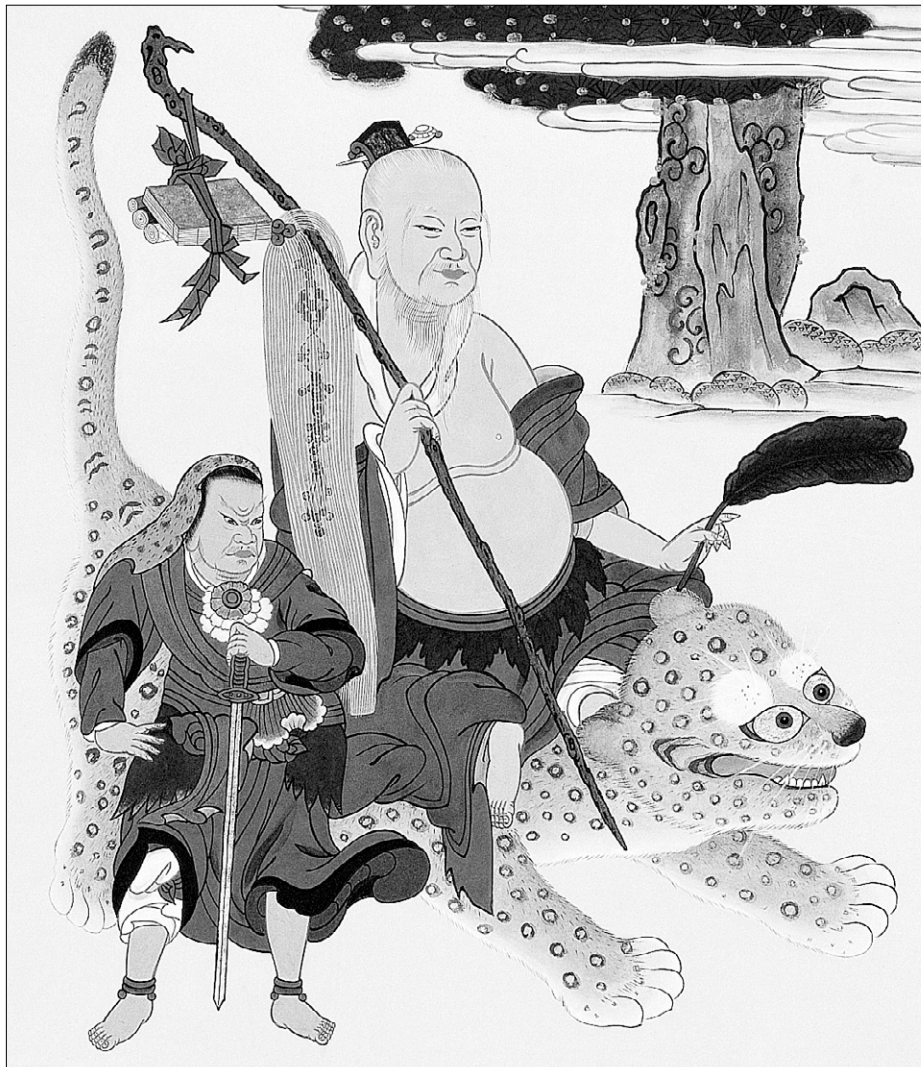
양산 통도사 응진전·명부전, 부산 범어사 대웅전, 파주 보광사 대웅전, 울진 불영사 대웅보전 등에서 호랑이의 그림 및 벽화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통 호랑이가 정면을 응시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벽사와 수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벽사 기능을 한 그림들은 많은 사찰의 전각에서 종종 볼 수 있다.

호랑이 그림은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승유역 불정적으로 인해 유교나 도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됐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호랑이는 좀 더 친근하고 풍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조선시대에는 호랑이가 정통회화, 조각, 공예품 등 일상생활에서 깊게 관련됐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산신 탕화, 벽화 등에 호랑이 모습이 더욱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고스란히 사찰벽화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원래 벽화는 불교의 경전이나 예배, 교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조선시대 벽화는 이를 좀 더 풍자적으로 담고 있다. 조선시대 벽화에 그려진 호랑이 모습은 담배를 피는 모습, 날개 달린 비호 등 해학적인 모습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에서 길조인 까치는 호랑이를 골탕 먹이는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주로 민간에서 많이 그려지던 호랑이 그림이 사찰의 장식으로도 활용됐다는 것은 충분히 흥미로운 일이다. 이러한 그림들은 현재 수원 팔달사와 화계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불교회화속의 호랑이

산신탕화는 아직까지 불교회화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조선시대 양반 중심의 사회에서 소박한 시민들의 삶을 표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민간인이 즐겨 그리던 호화도, 산신도 등을 산신각에 불한 것은 한국불교의 포용력을 보여주는 면모이기도 하다. 회화전 민화이건 간에 예부터 한국은 그림을 풍자의 도구로 활용하지 않았다. 그만큼 영악하거나 투쟁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그림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 장식했다는 것은 정말 순수한 그들의 삶을 나타내주는 증거이다.

산악승배 사상이 강했던 우리 민족은 지금도 전국 사찰이나, 명산에 산신각을 짓고 산신령을 모신다. 산신각에 있는 호랑이의 모습은 대개 산신을 보호하며, 인간의 길흉화복 관장에 대한 사려 깊은 모습을 하고 있다. 때로는 심부름꾼으로,



호랑이는 산신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산신도에 산신과 우주주인 나무와 함께 등장한다. 그림=이승자 작.

때로는 자신이 산신이 돼 사람들에게 비취겠다. 언제부터 호랑이가 산신으로 등장했는지는 어디에도 기록이 나와 있지 않다. 다만 불교가 우리나라에 토착화되는 과정과 본래의 토착 종교였던 산악승배가 호랑이를 승배하는 사상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경인년은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백호의 해이다. 백호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욱 신성시돼 탕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불교에서 호랑이는 이승과 저승 세계를 왕래하며 염라대왕을 수호하는 모습이다. 불교회화에서 16나한도나 8금강도·십이지신도·경변상도 등 호랑이는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특히 감로탕화에서 호랑이가 많이 등장한다. 또한 지장탱화, 지장시왕도 등에서 나찰의 자격으로 우두·마두나찰과 같이 등장하기도 한다.

#불교설화속의 호랑이

호랑이는 절 이름 등 설화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불교 속에 나오는 호랑이는 어리석

음과 탐욕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열정적 성스러움을 지닌 이미지로도 보여진다. 또한 심판자나, 고독하고 때론 군센 이미지로 등장하기도 한다.

일본 나라현의 법흥사 벽화인 사신사호도는 부처님 전생담을 담고 있는 호랑이 그림이다. 옛날 어떤 나라에 아들 셋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마하사다였다. 어느날 세명의 왕자는 숲으로 놀러 갔다가 굶주린 어미 호랑이와 일곱 마리의 새끼를 발견하게 된다. 이때 막내 마하사다 왕자는 호랑이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호랑이를 살린다. 결국 마하사다 왕자는 죽고, 그 후 마하사다 왕자는 부처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는 내용이다.

사찰연기설화에 나오는 호랑이는 자유자재로 인간으로 변신해 인간과 교류하거나 스님의 도움을 받고 그 은혜를 갚은 인과응보 관계를 보여준다.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설화중에는 신라시대에 호랑이를 사랑하고 호원사를 창건한 김현의 이야기가 있다. 원성왕 때 흥륜사의 복화에

참가해 복을 빌기 위해 탑을 돌던 김현은 자신을 뒤따르는 어여쁜 처녀와 만나 정을 나누게 된다. 그는 결국 그녀에게 호감을 느껴 그녀의 거처로 갔으나 뜻밖에 처녀가 호랑이 일족으로서 사람으로 화신한 것을 알게 됐다. 소녀를 따라 호랑이 굴에 들어간 김현은 형제호랑이에게 잡혀 먹힐 뻔 했으나, 소녀의 도움으로 탈출하게 된다. 어느날 성안에 맹호가 나타나 많은 피해를 입히게 돼자, 소녀는 김현에게 자신을 죽여 공을 세우라고 부탁한다. 약속대로 김현은 소녀의 유언에 따라 소녀를 죽이고, 그 공으로 작위를 받게 된다. 김현은 서천가에 호원사를 지어 죽은 소녀 호랑이의 명복을 추도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회방사의 오누이담에 얽힌 이야기도 있다. 한 스님이 호랑이 목에 걸린 가시를 꺼내 준 보답으로 미녀를 얻었지만 흥들림 없이 계속 정진하자, 이에 감동한 여인이 스님과 함께 불도에 정진한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다.

동진 용안 2년에 개달 스님은 감초를 캐러 갔다가 오랑개에게 잡히게 된다. 그 해는 흉년이 들어 사람까지 잡아 먹던 때라 개달 스님은 밤새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외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큰 호랑이가 뛰어들어 개달 스님을 구하고 사라져 버린다. 자유자재로 변해 대중을 구하는 관세음보살이 호랑이로 화해 개달 스님을 구한 것이

본색을 드러내 동자를 아예 잡아먹고 말았다. 그날 밤 돌아온 스님은 이 일에 대노해 도끼로 호랑이 한쪽 발을 잘라내고 쫓아냈다. 호랑이는 결국 슬피 울며 백련암을 떠나 자취를 감추게 된다. 다시는 사람 눈에 뜨지 말라는 스님의 말에 따라 지금도 호랑이는 산 속 깊이 살며 외발자국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통도사에 한 젊은 학인이 장차 유명한 강사가 되려고 결심하고 백운암 중턱에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다. 하루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는데 산 나뭇잎을 깨던 한 처녀가 그만 길을 잃고 헤매다 백운암을 발견하고 도움을 청했다. 어두운 산길을 처녀 혼자 둘러보낼 수 없어 학인은 난처했지만 처녀를 들이고 자신은 밤새 경전을 읽었다. 수려한 이목구비에다 청아하고 낭만한 독경소리에 빠진 처녀는 젊은 학승에게 연정을 품게 됐다. 집으로 다시 돌아온 처녀는 결국 학인을 연모해 상사병에 걸리게 됐다. 처녀는 자기의 이루지 못할 사랑의 고백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학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부모는 딸의 깊은 병을 고치기 위해 젊은 학승을 찾아가 애걸을 했다. 그러나 대강사가 되기 위해 그 부탁을 거절했고, 처녀는 결국 시름시름 앓다 죽게 됐다. 그 후 학인은 강사의 영광을 누리게 됐고, 산중의 전 슬러가 모인 가운데 축연을 열었다. 연회가 한창 무르

정면 응시하는 호랑이 그림은 벽사와 수호 의미 토착종교였던 산악승배가 호랑이 승배로 변화해

다. 반대로 호랑이가 어리석고, 포악한 존재로 비춰지기도 한다. 가야산 백련암에 관련된 설화로,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 한 스님이 백련암을 향해 오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계속 울부짖으며 길을 가로막았다. 결국 호랑이는 스님을 자신의 등에 태워 백련암에 데려다 줬다. 그 다음날 호랑이는 스님에게 다시 찾아와 같이 살기를 간청한다. 스님은 한사코 반대했지만 동자가 하도 졸라 호랑이를 절에 들이게 된다. 호랑이는 비록 짐승이었지만 예불에도 꼭꼭 참석하고 살생도 금했으며, 동자와는 친형제처럼 지내게 된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스님이 마을에 잠시 내려가고 호랑이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갔다. 저녁밥을 짓던 동자는 실수로 칼에 손을 베이고 만다. 동자는 붉은 피가 아깝다는 생각에 호랑이에게 주기로 마음을 먹고 호랑이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피를 빨아 먹으라고 권유한다. 호랑이는 동자의 권유에 선통 먹을 수가 없었지만 할 수 없이 피를 빨아 먹게 된다. 그러다 결국 호랑이는

익었을 무렵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사납게 울부짖었다. 대중들은 누구인가가 호식을 당할 사람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각자 저고리를 벗어서 밖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맨 마지막 세로 취임한 강백의 저고리를 받은 호랑이는 저고리를 갈기갈기 마구 찢으면서 더욱 사납게 울부짖었다. 결국 호랑이는 강백을 낚아채 갔고, 다음날 강백은 백운암 옆 등성이에 아무런 상처나 없이 얼드러져 있는 시체로 발견됐다. 자세히 살펴보니 남근이 없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전설이 전해지는 통도사에는 아직도 호석이 남아 있다.

이처럼 불교속의 호랑이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민족과 함께 하고 있다. 가야산 호랑이는 아직도 한국불교의 정신적 지주라 불리며, 한국불교의 수행과 선공의 기틀을 다지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다. 호랑이의 울음소리에 따라 한국불교가 달라진다고 믿는 것처럼, 불자들이 2010년 경인년에도 호랑이의 포효처럼 부처님 법에 따라 한해를 우렁차고 힘차게 살아가길 바란다. 이은정 기자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

대한불교조계종

지 장 선 원 안양불교대학

월간 안양불교신문

회 주 세 민
주 지 현 호
신도회장 심정구
고 문 이필상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88-3번지
전화 031) 444-5935 팩스 031)444-5655

경인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정 각 사 화엄불교대학

소원이 꼭 성취 되는 절

주 지 정 엄
사부대중 일동

■ 일요법회: 가족·어린이·청소년(중고생)
■ 명문 화엄불교대학개강 봄학기 3월초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38-1 거성3차
군 홈페이지: www.junggaksa.com
(검색어: 정각사)
군 전 화: 031)398-8001
군 지 하 철: 4호선 산본역(3번출구)

대한불교삼론종

지 장 사

충북도 황령지간(구 대각사)

원로원장 석초원(성진)

주 지 석청용
계획실장 석대우
의전실장 석대목
신도고문 정헌돈
회 장 신순옥
총 무 정순옥
사회부장 윤상필

지장사 대중일동

전화 043)745-5738

公益 大韓佛教華嚴宗
法人

大本山 藥師寺

(약사 추모관 운영중)

회 주 화 담
주 지 화 응
부 주 지 대 휴

신도일동

財團 華嚴僧伽獎學財團
法人

公益 大韓佛教華嚴宗獎學會 法人

이사장 한상호(화응)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산 21
☎ 032)422-2066

서울사무소 소장 양 위 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1-6번지 삼성빌딩 406호
전화 02)730-0798~9 / 팩스 730-0799

독성기도성령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삼성암

회 주 수봉 세민
주 지 만월 현중

사부대중일동

진실한 기도가
알고싶거나 해보고 싶은분
[매주 토요일 대다라니기도]

나한성지순례기도법회 : 매월음력16일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8
TEL. 02)988-9300,1996
www.samsungam.org